발간자료

• **전략 Weekly:** 반도체의 위상은 여전하다고 판단. 그러나 금주 이벤트 위크가 지나면 2/25일 엔비디아 실적까지 반도체 섹터는 모멘텀 공백기 진입. 반도체 매도가 아닌 일부 차익실현 후 확장된 후보군을 활용한 초과 수익 추구 필요. 정부 정책지원이 더해진 코스닥 지수와 거래대금 급증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증권, 중국 인바운드 수혜 및 내수 반등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유통, 화장품, 의료기기, 호텔레져 등도 관심

(투자전략 조병현)

• **반도체(Overweight):** 메모리 공급사들은 최대한으로 공급 중임에도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 공급자 우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미 가파르게 올라간 가격이지만, 아직 더 위를 상상 가능한 환경. 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177.0조원, SK하이닉스 138.8조원 전망. 수요의 근거는 Physical AI &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증가세. 컴퓨팅 수요>공급의 제약적 환경은 계속될 것. 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규 Fab 공간은 모두 HBM으로 할당. 26년 범용 내 유의미한 증설은 전무. 금번 실적 발표를 업종 추가 랠리 시작점으로 판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적정주가 24.5만원, 120만원으로 상향

(반도체 고영민)

• **건설/부동산 SPOT:**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5.9만호 공급 계획. 입주물량 급감 시점 도래. '26년말 기준, 전국 준공물량 20만호대 초중반, 서울 2만호 수준까지 감소 전망. 이번 공급 물량은 과거 수도권 연평균 공급 물량의 5~6%에 불과. 신규공급용 유휴부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수급불안정 및 가격상승으로 주택사업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단,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시장 회복 필요

(건설/부동산 박영도)

• **현대차_BUY/64만원:** 4Q2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46.8조원(YoY +0.5%), 영업이익 1.7조원(YoY -39.9%) 기록. 관세비용은 1.46조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약 3천억원 가량 감소, 원 발생구조대비 약 60% 수준으로 축소하는 전략이 작용한 것. 가이던스를 반영해 2026년 영업이익은 약 12조원으로 추정. 기존 당사 추정치인 13.95조원 대비로는 약 15.6% 하향한 수치

(자동차/2 차전지 유지웅)

• **LG에너지솔루션_BUY/55만원:** 4Q2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1조원(YoY -4.8%), -1,220억원(YoY 적자지속) 기록. 4Q25 매출액 중 ESS가 약 21%의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매출 환산시 1.3조원규모로 추정. 1Q26 AMPC 수령액 3,330억원 추정. ESS 매출 급증으로 GM향 수요부진 물량이 소화되고 있어 3천억원대가 AMPC 마지노선으로 판단

(자동차/2 차전지 유지웅)

• **Meta Platforms_Not Rated:** 매출액 599억 달러, 영업이익 247억 달러로 컨센서스 소폭 상회. 에이전트와 개인 맞춤형 초지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커머스 부문 왓츠앱에서의 기능 확장을 밝힘. 2026년 메타 초지능 연구소와 핵심 사업 큰 폭 투자를 계획하며 CapEx 전망치는 1,150~1,350달러 제시. 동사의 차세대 모델 성능에 따라 주가 방향성 결정될 전망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대덕전자_BUY/7.2만원:** 4Q25 영업이익 290억원(OPM 9.1%)으로 OP 컨센서스(268억원) 상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OPM 12%대로, 원부재료 비용 상승에도 견조한 이익률 시현. 26년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축은 FC-BGA. 26년 전반에 걸쳐 서버&전장 모두 구조적인 물량 증가가 확인될 예정. 26년 FC-BGA 매출액 3,285억원(+49% YoY), OPM 4%대 안착 전망. 투자의견 BUY 유지, 적정주가는 26E EPS 3,017원에 적정 P/E 24배(금번 Cycle 내 12MF P/E 상단 평균) 적용한 7.2만원으로 상향

(전기전자 김연미)

• **삼양식품_BUY/170만원:** 4Q25 연결 매출액 6,376억원, 영업이익 1,389억원,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 하회. [지역별 매출액] 중국 법인 광군제 재고 소진 지연으로 QoQ 감소, 미국 법인 가격인상과 우호적인 셀아웃으로 QoQ 두 자릿수 증가. [영업이익] 4Q25 매출원가율 53.4% 로 큰 폭 하락. 다만 마케팅비 증가 및 중국법인 매출액 QoQ 감소로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하회. [투자의견]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적정주가 170만원으로 하향. 주가 반등은 수출액 MoM 반등과 함께 나타날 것

(음식료 이다연)

• **POSCO홀딩스_BUY/45만원:** 4Q25P 실적 컨센서스 대폭 하회. 철강, 인프라, 이차전지소재부문 모두 손실 및 비용이 반영된 건들이 있었기 때문. 2026E는 회복 포인트들이 존재. 1) 적자를 봐왔던 이앤씨와 장가항STS의 이익 개선,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세넥스 가스전 증설 반영, 팜농장 인수에 따른 이익 증가, 3) 리튬 가동률 증가와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차전지소재부문의 적자폭 축소

(철강 이정우)

• **현대글로비스_BUY/32만원:** 4Q25 연결 영업이익 5,803억원(+11% YoY), 컨센서스 4% 하회. 해외물류사업이 1) 유럽 물량 감소, 2) 컨테이너 시황 악화 영향으로 부진했음. 2026년에는 물량 회복 예상. 2026년 투자포인트: 1) PCC 고단가 물량 확보 및 선대 효율화로 마진 개선, 2)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가치 상향. 투자의견 Buy, 적정주가 32만원 유지

(운송 오정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